

† 마데테스는 제자라는 헬라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느낀다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 은석교회는



성정은 자신의 행위를  
청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안다’는 것을  
정제합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되면 판단과 비판이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제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 그리 한번 살아볼 일이다

신 윤 식

염려와 근심의 나락에 빠져  
마음 편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제는 가면 가는 대로  
그리 한번 살아볼 일이다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나니  
구름 한 조각 다가왔다  
저 멀리 사라지는 것 바라보듯  
내게로 왔다가 떠나가는 것 있어도  
가물가물 손 흔들어 줄 일이다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제는 오면 오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볼 일이다

천하에 사랑만큼 선한 것은 없나니  
그대에게 스며드는 사랑에 감사하라  
가는 것도 사랑이고  
오는 것도 사랑이다

우리여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이제는 그리 한번 살아볼 일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2.27

발행호수 제19권 9호

지 난 주일에는 각 기 다른 시간에 품꾼을 부르고 샀은 모든 품꾼에게 동일하게 지불하는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배우게 된 천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

랐습니다. 그 중점이 천국에서의 상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일한 대로 받는 것이지만, 포도원 주인은 일한 대로가 아니라 모든 품꾼에게 동일한 샹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한 시간, 분량, 결과 등을 따져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의 샹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주인이 품꾼을 부른 것은 애당초 포도원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품꾼들의 생계, 즉 생명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상이 다르다는 논리는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무시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으로 일을 더 많이 하고도 가장 적게 일한 품꾼과 동일한 샹을 받은 품꾼들의 불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 상황이라면 품꾼들은 주인에게 받은 품샹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에 품샹을 받을 때가 가장 즐거워야 합니다. 물론 품꾼들은 품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가장 늦게 온 품꾼이 샹을 받는 것을 보면서 가지게 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기쁨 대신 갖게 되는 불평이나 원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다스리는 세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오전설교  
마 20:1-16

## 품꾼의 불평

우리는 천국이나 구원, 영생이라는 말을 현재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용어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천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원된 것으로 여기며, 영생 또한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존한 상태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상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구원, 영생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천국과 구원, 영생 이 모든 것은 단어는 다르지만 각기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천국이 곧 구원을 의미하고, 구원이 곧 영생을 의미하며, 영생이 곧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를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십자가에 죽으심)이 되심으로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진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들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생생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신자가 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산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앎으로써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육신이 몸담고 있는 주변 환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주변 환경의 좋고 나쁨을 통해서 편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육신이 누리는 편함의 상태를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육신이 몸담은 환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는 환경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가치에 대해 무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앎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없다면 뭔가 신자로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구원, 영생이라는 이 말들이 지금 현재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세계, 즉 죽은 다음에나 누릴 것으로 밀쳐 버리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앎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입니다. 물론 마음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마음이 있는 마음이 마음이 전혀 없이 사랑만 있는 마음으로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뜻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기쁨과 미움과 실망과 분노 등등의 마음이 수시로 교차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건이 기쁨이 되었다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품꾼은 일일 노동자입니다. 일일 노동자는 하루 노동한 값으로 하루, 또는 이틀을 온 가족이 먹고 살기 때문에 하루 일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 일꾼으로 택함 받고 부름 받았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날 하루는 공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온 가족이 굶지 않게 되었다는 기쁨인 것입니다. 만약 일할 곳을 얻기가 힘든 시절이었다면 기쁨은 더 컸을 것입니다.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쁨도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포도원을 가진 부자인데 나는 노동이나 하면서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처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쨌든 품꾼들은 가장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값을 받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

럼 품꾼들은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 받고 일을 하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기쁨과 기대와 실망과 불평이 교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불평은 이해가 되고 타당하며 논리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는 기쁨과 감사라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 또한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품꾼의 불평의 원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실망과 불평으로 이끌어 가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불평과 실망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생각하는 기쁨과 행복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해 타인과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능력을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가 타인보다 많을 때는 흡족해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적을 때는 실망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연봉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일하게 월급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천국 문제까지 그대로 연계되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니 천국에서도 남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품꾼의 불평은 한 시간만 일하고도 자신과 동일한 값을 받은 품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수고와 능력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여겨졌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주인의 약속대로 자신이 받은 것에만 시선을 두었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에게 주어질 약속된 값이었고, 그것은 온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다는 것에 마음을 두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게 일한 사람이 적은 삿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가족은 그만큼 힘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적게 일한 품꾼에게도 자신과 동일하게 지불한 주인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우리의 존재에 초점을 두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기쁨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가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는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평가하고 계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총을 받고 삽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살수 없지만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다. 부자는 더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다섯 끼 열 끼를 먹으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온갖 즐거운 것들을 잠도 자지 않으면서 평생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싸고 좋은 집에 살면 편리한 것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더 나은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참으로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돈으로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타인이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많고 적고 따지고, 그것으로 불평해 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총의 본질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품꾼에게 처음에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다면 그 고마움이 끝까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그것은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으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모든 품꾼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같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품꾼이 기뻐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기뻐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우설교  
롬 8:22-27

## 성령의 탄식

(성령 7강 2.13일 설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지체라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세우신 성령이 피조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부인하면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두면서 교회로 모이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개 보면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것을 신자의 신앙이 연약하여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신앙이 강한 신자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무리가 있으며 모순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가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 성령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야 하고, 그렇다면 모든 신자의 신앙은 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 자신의 신앙이 연약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간구하심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기도도 듣지 않으셨다는 모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약함을 세상의 힘든 일로 인해서 낙심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교회 생활에도 마음이 멀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신자의 연약함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언급하고자 하는 연약함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4,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생각해 본다면 사도가 말하는 연약함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소망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23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완전한 몸의 속량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몸은 단지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몸의 속량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늘의 생명에 속한 자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신자에게 있어야 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해진 시간 약속이 없는, 한파도로 기약이 없는 소망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대신 보이는 것을 좇아살게 됩니다. 즉 참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깨닫는 신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탄식입니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연약함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보는 것을 좇지 않고 보지 못하고 기약도 없는 소망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힘쓰면 힘쓸수록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만 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면서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함께 한 성령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함으로 인한 신자의 탄식은 신자의 종교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탄식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좇아 사는 사람도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탄식은 모두 보이는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남들만큼 없다는 것이 탄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을 좇는 욕망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세상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망이 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참음이 없어서 보는 것을 좇게 되는 자신으로 탄식을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탄식이야말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탄식을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로 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함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소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는 것을 좇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령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탄식은 말 그대로 성령의 탄식일 뿐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여전히 보는 것을 좇아 산다면 결국 성령이 간구가 실패했다는 논리도 가능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은 곧 성령 받은 신자의 탄식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우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고 그것이 성령의 탄식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교회가 말하는 성령은 아주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열광적인 신앙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열광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찬송을 할 때 조용하면 소극적인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열광적인 모습으로 연결하게 되면 개인적인 신앙체험이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체험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피조물이 되게 하여 성령에게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소유된 성령의 피조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좇아 사는 것은 분명 욕을 좇는 것인데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탄식이 없다는 것은 전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 연약함에 대해 사도와 같은 탄식과 한탄

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이 피조물로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교회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오직 교회의 성장을 강함으로만 인식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역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신앙의 강함의 결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탄식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남들보다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히 11: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소망임을 알면서도 참된 소망을 참음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보이는 것에 굴복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탄식은 신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탄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과 함께 참된 희망은 주께 있음을 거듭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탄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용서의 주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한 탄식이 있습니까? 그 탄식이 바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스 가라는 학개와 동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스가라 선지자가 외치는 말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는 유다 백성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3절)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란 뜻이 되는데,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고 외친다면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고 외친다면 그것은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로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즉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돌아온 자로 보십니까? 아마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로 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는 것은 교회를 떠나고 다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4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고 하면서 조상들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조상의 악한 길,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지를 낳았고, 보이는 성전과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신앙으로 붙드는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숙 1:1-8

**돌아오라**

(1강 2.16일 설교)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사고방식이 조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즉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의 실상이었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곧 여호와에게 돌아온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자신이 물려받을 것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고픔을 달래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떠난 것이 곧 인생의 실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가는 그 심정은 아들이 아니라 일꾼의 하나로 여겨도 좋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돈을 받아서 실패를 만회하고 기어코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의도로 돌아간 것이라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힘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일 뿐입니다. 몸은 아버지에게로 향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아버지에게

서 떠난 것이 곧 실패라는 것을 깨닫고 품꾼의 하나로 여김 받아도 좋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겠다는 그 심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는 그 집에 거하는 것이 곧 기쁨이고 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시 건축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복을 받기를 기대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있는 모습이었습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고 자비하심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온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고 저주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때문에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그대로 있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중요한 것은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신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하고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하기 전 유다에게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제사와 제물을 바치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로 제사하고 제물을 바쳤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실패자임을 절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0장

교 독 : 10(시16)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285장

성 경 : 마 20:1-16

말 씬 : 품꾼의 불평(12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38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 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60장

기 도 : 이애림 집사

찬 송 : 415장

성 경 : 롬 8:12-14

말 씬 : 성령과 몸의 행실(성령 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21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스가랴 강해(3강)

## ■ 교회소식 ■

1. 다음주에는 예배당 대청소를 합니다.

2. 등록하셨습니다.

● 박연희(그린빌A 104/603 010-5020-8199)

● 윤명원, 장명숙(처), 윤시안(딸)

(이국동 한빛마을 309/1506 018-401-2126)



다음주 기도

오전 조규현 장로 오후 박철현 집사

## 이제는 묻는 것도 바뀌볼 일이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거나 듣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질문에는 목사인 나도 조금은 당혹스러워진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는 질문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간명한 대답, 즉 ‘예 나 아니오’ 로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질문에 ‘예 나 아니오’ 로 답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과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 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인한 결과다. 그러한 믿음을 ‘예’ 라는 답 하나로 믿는 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믿음의 주도권을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아니 그보다도 왜 꼭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이 질문 역시 질문 받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믿음과 매한가지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질문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구원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대가로 주어지는 어떤 것일까?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는 그것일까?

사람들은 믿음과 구원에 대해 예수 믿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는 간명한 가르침만을 생각하는듯하다. 그래서 ‘예 와 아니오’ 라는 답만을 기대하고 위의 질문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믿음과 구원의 문제는 신자가 평생토록 매일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알아야 하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예 와 아니오’ 라는 답으로 무 자르듯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구원만 해도 그렇다.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되는 좋은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세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때문에 구원은 ‘따 놓은 당상’ 과 같은 어떤 결과물도 아니고 보상으로 받게 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성취해 가시는 과정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그래서 믿음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는 하나님이 아들이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라는 등등을 받아들이는 인지적 믿음이나 자기 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맡기게 되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실존적 삶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 예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위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묻는 것도 바뀌볼 일이다. ‘예수 믿으세요?’ 보다는 ‘돈보다 용서의 은혜가 좋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보다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구에게 하거나 듣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